

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	2022.01.12.(수)
위원정수 : 5명	재적위원 : 5명

1. 일 시 : 2022.01.18.(화) 10:00

2. 장 소 : 총장실

3. 참 석

구 분	인원	성 명	비 고
참석인원	3명	김문기, 김봉한, 엄정아	간사 손명현 서기 임수현
불참인원	2명	이동현, 정영훈(외)	.

4. 안 건

가. 임의퇴직기금 인출 후 임의특정목적기금(운영비) 재적립 후 인출 사용의 건

나. 임의장학기금 적립

5. 회의내용

(손명현간사(이하 "간사")의 사회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어 김문기위원장(이하 "위원장")이 회의를 개최하다.)

가. 임의퇴직기금 인출 후 임의특정목적기금(운영비) 재적립 후 인출 사용의 건

(간사가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.)

- 위원장 : 이번 회계 최종추경 결과 4억 4천만원이 부족하다.
- 엄정아위원 : 현재 자금은 등록금회계에 약 5억원, 비등록금회계에 약 4억원 남아있다.
- 김봉한위원 : 한달 운영비가 얼마정도 되나? 지금 시점이 한달반정도만 남은 상황인데 이정도 자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한가?
- 서기 : 한달 운영비로는 등록금회계는 약 5억원, 비등록금회계는 약 3억원정도였으나 올해 많은 부분을 감액하여 총 6~7억원 사이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.
- 김봉한위원 : 그럼 가능한 것 아닌가? 잘 조율하면 기금을 깨지 않아도 될 것 같다.
- 위원장 : 가능하다면 기금을 깨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. 기획예산팀에서 한번 더 검토하여 가급적 인출하지 않는 방향이면 좋을 것 같다.
- 간사 : 재무회계팀과 함께 추가 검토하여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.

나. 임의장학기금 적립

(간사가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.)

- 간사 : 매년 학부장학 통장에서 8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이월되고 있어 차기이월자금이 커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여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한다.
- 위원장 : 다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?
- 간사 : 이미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2월내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- 위원장 : 그럼 5천만원만 적립하고, 남은 금액은 2022학년도 1학기에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통장 잔액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- 김봉한위원 : 적립을 해버리면 인출하여 사용하기 어려우니 그동안 이월된 것 같다.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다.

(엄정아위원의 동의와 김봉한위원의 재청으로 학부 장학 통장 잔액 중 5천만원을 임의장학기금으로 적립하기로 의결하다.)

6. 폐 회

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위원장의 의견에 김봉한위원의 동의와 엄정아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10:30에 폐회하다.